

한강이 바라는 '책 읽는 광주'...동구 '인문도시' 정책 주목

독서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올해의 책'·'구민 권장 도서' 선정 지역 책방 연계 구민 독서운동·주민과 함께 열린 독서문화 등 행사

광주시 동구의 '인문도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전국적으로 독서와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다.

2018년 인문도시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지난 6년여간 인문도시 조성 사업을 해 동구의 정책이 최근 한강 작가가 광주시에 요청한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 달라"는 소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책 읽는 동구' 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독서 문화 활성화 사업을 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는 인문도시 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의 책 및 구민권장도서 선정, 지역 책방 연계 동구민 권장도서 지원 및 구민 독서 운동,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및 독서활동가 양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독서문화 행사 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해마다 전문가 도서 선정단 등을 통해 '올해의 책' 10권과 '구민 권장 도서' 80권을 선정하기도 했다. 도서 선정단은 교육청과 도서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이 추천한 도서 중 후보 도서를 압축해 구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의 책을 선정해 왔다.

'올해의 책'과 '구민 권장 도서'는 동구와 협약을 맺은 광우서점 등 지역 책방(독립서점) 10곳을 통해 독서공모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했다.

독서공모전은 추천 도서를 읽은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대회로, 부문별(청소년·성인·가족·단체)로 시행된다. 참가자는 2020년 280여명에서 올해 950여명으로 3배 넘게 뛰었다. 공모전 등을 통해 동구는 지난 4년(2021~2024) 동안 매년 4000여 권씩, 총 1만 4000여 명에게 권장 도서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독서교실' 또한 성황이다. 동구는 지난 4년 동안 학교와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에서 동화구연·낭독·글쓰기 등 프로그램을 총 380회 진행했으며, 참가자 수는 6000여명을 넘겼다.

주민들의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40여 개의 인문(독서) 동아리 회원들 또한 1년간 매달 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독후감을 공유하기도 했다.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마을 인문산책' 사업도 성과를 보고 있다. 동명책방,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책과 생활, 지역 책방, 문학서점, 소년의 서 등 각 독립서점에서 각 책방의 특색을 담은 북 토크와 낭독회, 인문 강연 등을 5년간 76회 진행했다.

동구는 최근 도시브랜드로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인문대학' 운영, '어르신 자서전 쓰기', '인문 골든벨', '인문 글로벌 지도자 양성' 등 인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동구 무등산 인문 축제'를 열기도 했는데, 이를 동안 3만여 명이 방문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인문 사업을 바탕으로 동구는 지난 2022년 전국 규모의 순회 행사로 치러진 '한국지역도서전'의 6번째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동구 동명동에 있는 '인문학당'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6년간 주민들과 함께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공들여 온 만큼 이후로도 다양한 인문 사업을 펼쳐가겠다"며 "한강 작가가 희망하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광주'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독서 열기 속...광주는 지금 '책 축제'

26일까지 '책향기 서구 책 축제' '북구 다북다북 책 축제' 등 개최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다채로운 책 축제가 열린다. 서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0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를, 북구는 '독서와 함께 Re:play'를 주제로 26일 '다북다북 책 축제'를 개최한다.

서구는 '책축제 10주년, 미래를 펼쳐 행복을 읽다!'라는 주제로 서구청 및 상록도서관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 및 독서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작가 북토크, 체험부스, 책 나눔, 독서캠핑존 등으로 친구·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24일에는 지역서점과 연계해 서구청 1층에 책방을 체험할 수 있는 '정오의 책방'을 선보이며 오후 4시 2층 들불홀에서 김영하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25일에는 상록도서관에서 책축제 인문주간을 기념해 오후 7시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저자인 윤정은 작가X서울밴드의 북콘서트가 열리며, 26일에는 '내 마음 스스승'의 김지영 그림책 작가, '에덴호텔에서는 두 발로 걸어주세요'의 나현정 작가 등 다양한 문학계 세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해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26일에는 독서문화체험 부스에서 폐북(book)을 활용한 팝업북 만들기, 행잉화본 만들기, 가을 곤충만들기, 출판사와 연계한 마켓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작가의 방, 도서관과 사서의 세계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전시들과 매직 저글링쇼 공연도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밖에 부스 스탬프 투어, 다양한 포토존, 축제 홍보인증 SNS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북구에서 열리는 다북다북 책 축제는 독서 콘텐츠를 매개체로 주민 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 지역에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2021년부터 학교, 독서단체 등과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책 축제는 효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공연마당 주요 프로그램은 캘리그래피 작가 '별하'의 '한 붓 그리기 퍼포먼스', '공포의 새우눈' 저자 '미우 작가와의 만남', '매직&버블쇼' 등이 준비됐다.

또 체험마당에서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출판사, 효동초 등 15개 민·관·학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놀이마당으로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영수증 사진기', '에어바운스' 등이 마련돼 있고 도서 전시와 인디언 텐트 등을 활용한 '독서 캠퍼'도 제공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주민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책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하루를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색있고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힘써 독서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대회' 광주시 서구 풍암국민체육센터에서 최근 생활체조, 탁구, 파크골프, 배드민턴 4개종목 38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대회가 열렸다. <광주시 서구 제공>

위생 사각 '무인식품판매점' 안전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완 광산구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완(수완동·하남동·임곡동·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언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식품판매점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이고 상주 인원이 없다 보니 관리 소홀로 각종 위생 문제에 노출되어 식품위생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위생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광산구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남구 대촌동에 '국제 수준 축구장' 조성키로

광주시 남구 대촌동 빛고를 농촌테마파크 일원에 국제경기장 수준의 축구장이 조성된다.

남구는 대촌동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축구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남구 대촌동에 SRF(Solid Refuse Fuel·고형 폐기물 연료) 시설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축구장 건립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축구장 건립에는 광주시에서 SRF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급한 교부금과 구비 등 4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남구는 축구장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만큼 지난 8월부터 광주시 및 정부 부처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는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 주변의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남구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5년 대촌동 축구장 건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촌동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축구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구장이 건립되면 빛고를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한 다채로운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이 가능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